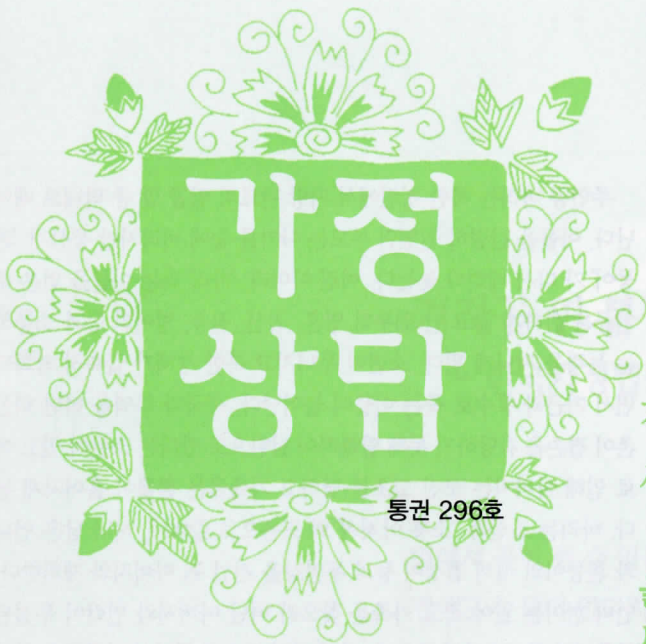




가족복리를 위한 법적 지원 확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하여 도약하는 해

올해부터 호주·호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4 • 신축기념식 인사말씀

6 • 특집 I 신축기념식

18 • 특집 II | 2007 상담통계

21 • 가정폭력상담실

24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26 • 인터넷 상담

27 • 결혼과 인생(63)

28 • 상담소 소식

30 • 지부 소식

31 •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기념식

일시 2008. 3. 26(수) 16시 장소 지하2층강당

4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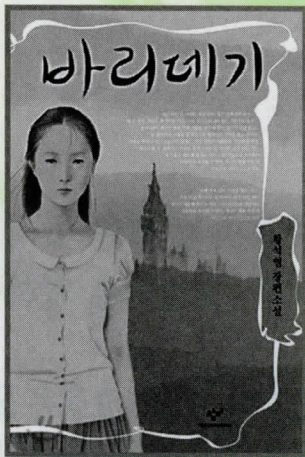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바리데기

황석영 장편소설
창비, 2007년 발행



아득한 옛날, 오구대왕이 있어 왕비와 행복하게 살았으나 기대하던 아들을 두지 못하고 여섯 공주만 낳은 것이 근심이었다. 일곱째 아기를 낳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딸이어서 왕은 그녀를 궁궐 뒤뜰에 버렸다. 버림받은 아기를 짐승들이 돌보니, 아기를 '바리데기'라 이름 지어 서해용왕에게 바치기로 하고 바다에 띄워 보냈다. 후에 왕과 왕비가 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마셔야만 낫는 병이라 했다. 여섯 공주가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으나 버림받았던 바리데기, 바리공주가 온갖 고난을 겪고 약수를 구해와 자신을 버렸던 부모를 구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 무속의 원형을 이루는 서사무가, 바리데기 설화이다. 무당들은 '바리'를 자신들의 원형신화로, '바리할미'를 샤먼의 조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나라 전역에서 행해져 왔던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천도극 즉 지노귀, 오구 등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황천무가의 주요한 대목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바리, 바리데기, 바리공주, 바리할미는 '고통 받은 고통의 치유사' 또는 '수난당한 수난의 해결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방문과 해외 체류 등 작가 자신의 폭 넓은 경험을 창작의 모티브로 승화시켜온 거장 황석영의 신작, 「바리데기」는 북한 이탈 주민인 한 소녀의 삶을 통해 현대에 태어난 바리데기의 삶을 이야기한다. 즉 탈북소녀 바리를 통해 신화와 현실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작가는 또 한 번 작품세계의 혁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주인공 바리는 북한 청진에서 지방 관료의 일곱 딸 중 막내로 태어난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부모는 아기를 숲에 버리지만 풍산개 '흰둥이'가 다시 데려다 놓는다. 버린 아이라 '바리'라는 이름을 얻은 주인공은 심하게 앓고 난 뒤부터 영혼, 귀신, 짐승, 병어리 등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근과 홍수로 죽는 이들이 늘어난다. 중국과 무역을 하던 외삼촌이 결혼을 감당하지 못해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모진 고초를 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바리는 조선족 '소룡 아저씨'의 도움으로 할머니, 하나 남은 언니와 흰둥이의 새끼 칠성이 등과 두만강을 건넌 뒤 아버지와 재회한다. 언니 현이는 얼어 죽고 가족을 찾으러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할머니마저 죽는다. 바리 역시 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찾아 보려 하지만 굶어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 귀신들만 목격하고 산불로 칠성이 마저 잃은 채 혼자가 된다.

그 후 바리는 연길의 발 마사지 업소, 대련의 안마업소를 거쳐 생지옥을 연상케 하는 밀항 끝에 런던에 도착한다. 런던의 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빈민가 연립에서 살게 된 바리는 연립을 관리하는 무슬림 파키스탄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의 손자 '알리'와 혼인하게 된다. 잠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때마침 닥친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알리의 가족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바리는 홀로 딸 '홀리아 순이'를 출산하나 런던 밀항을 함께 했던 상의 잘못으로 순이를 잃는다. 동생 우스만을 찾으러 파키스탄으로 갔던 알리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돌아온다.

우리 무속 설화와 탈북소녀, 9·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를 한데 아울러 한 편의 탁월한 이야기를 엮어낸 작가의 저력이 오랜만에 한국소설의 힘을 느끼게 해 준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으며 그 만큼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주인공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수많은 도시들과 찬란한 불빛들과 넘쳐나는 사람들의 활기를 보면서 이들 모두가 우리를 버렸고 모른척 했다는 섭섭하고 괴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숙현 편집부장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겨자꽃 핀 봄날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하여

정희성

법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법처럼 굳은 땅에 어떻게 짝이 틀까
바위 밑에서 민들레가 돋어나듯
아마도 꽃 피우는 법이
따로 있기는 있을지 몰라

반세기 전 척박한 땅 어두운 곳에
한 알의 겨자씨가 떨어져
어여쁜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중 슬픈 눈물 곁에 꽃 한 송이 피우더니
이 봄에는 여의도 한 복판에
눈부시게 섰노란 겨자꽃 잔치!

예전에 사내들이 못된 관습에 매여
누를 게 아낙뱀에 따로 없다는 듯
화풀이로 손찌검도 하였다지만
가여운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중 슬픈 앞치마를 적시기도 하였다지만
이제는 새 누리에 환한 꽃밭 보겠네

아희들아 나와서 바라 보아라
가난한 네 엄마가 몰래 울어서
온 누리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
아아, 슬기로운 우리나라 여자들이
반세기나 남아 되는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꽃이 되는 것을 눈 비비며 보겠네